

##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14, 2부 열왕기상 17-18장 2부---전투의 서곡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18장, 그 첫 부분은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전투의 전주곡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자료의 비율이 나에게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하는 구절이 24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멜 산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19개를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글썄, 갈멜산에서의 갈등은 분명히 가장 중요하며 약 35절로 구성됩니다.

아니요, 실례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소개하고 설정하는 이 자료는 19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 연구에서 비례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과 그의 영감받은 저자가 이 자료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 자료인가? 이에 대해 미리 정해진 답변은 없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고, 훌륭한 작가는 우리 독자들 앞에 상황을 제시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셋째 해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에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나머지 고대 근동 지역의 선지자 사이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대변자입니다. 신이 선지자를 붙잡고 선지자는 단순히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소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것들을 채운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지만 두 사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 상대방으로서, 하나님과의 대화 상대방으로서 그것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개성을 없애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당신의 특별한 모습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글썸, 나는 잔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뭔가 못생긴 머그잔이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잔처럼 흉측한 잔의 모양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과 나를 부르십니다. 오, 얘야, 내가 당신을 나 자신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당신의 특별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머그잔에서 쏟아지는 것과 똑같은, 잔에서 쏟아지는 황금 꿀로 세상을 축복하게 하소서.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밭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려고 갔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는 몇 구절 뒤에 오바댜가 그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일을 합니다. 나는 창세기를 생각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응답 사이에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잠 못 이루고 긴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비율의 법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흥미롭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려고 갔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18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다시 한 번 여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번 가뭄의 심각성 중 첫 번째입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사실상 그 나라의 총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용어 궁전은 말 그대로 그는 집 위에 있습니다.

NIV는 이를 궁전 행정관으로 번역합니다. 글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직함을 지닌 분들을 보면 단순히 궁궐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궁궐 관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가 총리인 것 같아.

여기 왕은 한 방향으로 가고 총리는 작은 풀을 찾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려야 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물자를 운반하는 노새, 다양한 마차를 끄는 노새, 전차용 말. 이들이 죽으면 우리는 적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일은 오바다를 소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사기를 읽은 후 항상 롯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그 유혈 사태 속에서도, 그 만연한 불순종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엘리야가 잊어버린 사실이었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어, 맏소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는 신실한 사람이 7,000명 있는데, 오바다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그는 바알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은 나라의 총리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세벨의 살인 계획으로부터 야훼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네, 가뭄이 심해요.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여왕의 엄청난 힘에 굴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아, 실제로 우리가 2020년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끔찍한 어려움의 시기가 있을 수 있으며, 2021년에는 희망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당신과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입니다. 침식됐나요? 우리 주변의 절망에 빠져들었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기로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 오바다는 그의 믿음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하늘로부터 어떤 표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충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과 나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바다가 길을 가는데 엘리야가 그를 만났습니다. 오바다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이르되 나의 주 엘리야여 정말 당신이시니이까 예, 그는 대답했습니다. 가서 네 주인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오바댜가 이르되 내가 네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 엘리야를 향한 아합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만일 그가 엘리야를 찾았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을 죽이면, 그가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내 질문은, 왜 오바댜가 걱정하는가입니다. 그는 내가 왕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길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 그는 당신을 데리러 갈 것이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 뭐, 도망갈 테니까.

아니,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12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를 떠날 때에 주의 영이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엘리야에게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당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절대적으로 통제하시고 언제든지 그녀와 함께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아뇨, 아뇨, 그게 아닙니다.

그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관되시지만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일관적입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네, 어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이로움과 가능성과 기회의 분위기 속에서 살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방법입니다.

알다시피, 내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지루함의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는 '아, 난 이미 그렇게 했어요'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그는; 이것을 적어 두세요. 그는 절대적으로 일관적이지만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두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상자가 깨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바द्या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근은 끔찍합니다. 엘리야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은 위험해요. 그는 이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글쎄, 그는 여기 없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고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द्या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의 서곡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투 자체와 핵심 질문인 신은 누구인가?로 돌아가겠습니다.